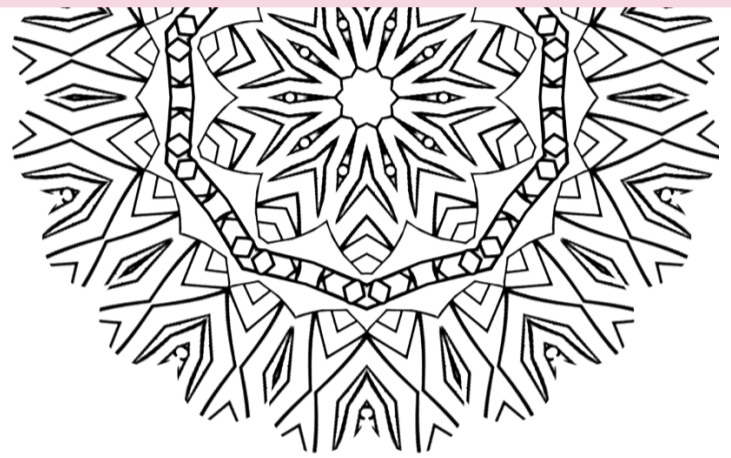


목서



실록 : 국어 공부의 正道

03_2018학년도 수능 16~19번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



How to use 독서실록

1. 수록된 문제를 **시간을 재지 않고** 풀어봅니다. 아무도 쫓지 않으니 진정하시고...! 천천히 생각하며 풀어보세요 ㅋㅋ
2. 기억에 의존하지 마시고, **지문(글)을 다시 천천히 읽어보면서** 문단과 문단의 관계성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머릿속의 구조도를 구체화하자!] 에 **구조도를 직접 그려보세요!**
3. 1,2의 과정을 다했다면, 선생님의 사고과정 해설을 보면서 **자신의 사고과정과 비교**해봅니다. 사고과정에서의 차이점이 있죠? 그것이 바로 YOU님의 문제점입니다.
4. 문제점을 발견했으니, 글을 다시 한 번 읽어보면서 **사고과정을 수정**해봅니다.
5. 뒤에 수록된 [1DAY 복습]은 1~4과정을 실시한 다음날 풀어보는 지문입니다. 천천히 읽어보면서 **자신의 문제점이 수정됐는지 판단**해봅니다.
6. 뒤에 수록된 [1WEEK 복습]은 1~5과정을 실시하고 일주일 뒤에 풀어보는 지문입니다. 천천히 읽어보면서 **자신의 문제점이 수정됐는지 판단**해봅니다.

기획 : 장민규

편집 : 장민규, 조창현

디자인 : 장민규

펴낸이 : 김민수, 장민규

펴낸곳 : 글장이수능국어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글장이수능국어'에 있습니다. 배포는 가능하나, 상업적 이용은 절대 금합니다.

오타자 및 책에 대한 피드백은 블로그 및 카톡 '글장이수능국어'로 주시면 됩니다.

꼭 읽어 보세요!!

1. 지문을 읽을 때는 [독해도구5]를 생각하며 읽어보세요.

[독해도구5]는 '사고'의 기본입니다. 즉, 지문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구조'도 '문제풀이법'도 소용이 없습니다.

2.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발문'을 주의 깊게 읽습니다.

발문은 문제풀이의 기준입니다. 정답과 오답을 구분하는 기준을 모른다면, 답 또한 찾아낼 수 없겠죠? 더불어, 습관적으로 생각없이 발문을 읽어서도 안 됩니다. 발문을 읽고 기준이 되는 부분에 꼭 표시를 해보세요.

3. 시간을 절대! 재지 마세요.

국어 공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독해 공부, 다른 하나는 문제풀이 공부입니다. 본 교재는 '독해 공부'에 목적이 있는 교재입니다. 독해 공부는 글을 읽으며 최대한 논리적인 생각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재게 되면 논리적인 사고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로 논리적인 사고를 연습하고,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을 문제풀이 교재로 연습하셔야 합니다.

4. 구조도를 꼭 그려보세요!

실전에서 구조도를 그리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조도를 그려보지 않는 학생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는 구조도를 그리는 목적을 오해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구조도를 그리는 목적은 '생각을 정리하는 연습'에 있습니다. 많은 기출을 통해서 많은 구조도를 그리다 보면, 지문을 읽으며 지문의 논리를 머릿속에 쉽게 정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5. 1Day 복습과 1Week 복습을 꼭 지켜주세요.

오늘 공부를 통해 깨우친 내용이 있어도, 우리는 인간이기에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깨우친 내용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루 뒤 복습과 일주일 뒤 복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지문을 3개씩 수록한 것입니다.

6. 매일 꾸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어는 우리의 말이 글로 쓰인 것이기에 언어적 특성이 그대로 담겨져 있죠. 따라서 꾸준히 사용하지 않으면 제대로 활용할 수 없음은 자명합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때, 유학을 가는 이유를 생각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글을 읽는 연습도 이와 같습니다. 매일 꾸준히 연습하시면 어느 순간 달라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목적 지향적인가? 자기 몸통보다 더 큰 나뭇가지나 잎사귀를 허둥대며 운반하는 개미들은 분명히 목적을 가진 듯이 보인다. 그런데 가을에 지는 낙엽이나 한밤 중에 쏟아지는 우박도 목적을 가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나며, 외적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 본성에 따른 운동을 한다는 목적론을 제시한다. 그는 자연물이 단순히 목적을 갖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실현할 능력도 타고나며, 그 목적은 방해받지 않는 한 반드시 실현될 것이고, 그 본성적 목적의 실현은 운동 주체에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자신의 견해를 “자연은 헛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요약한다.

근대에 접어들어 모든 사물이 생명력을 갖지 않는 일종의 기계라는 견해가 강조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많은 비판에 직면한다. 갈릴레이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베이컨은 목적에 대한 탐구가 과학에 무익하다고 평가하고, 스피노자는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왜곡한다고 비판한다. 이들의 비판은 목적론이 인간 이외의 자연물도 이성을 갖는 것으로 의인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비판과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을 생물과 무생물로, 생물을 식물·동물·인간으로 나누고, 인간만이 이성을 지닌다고 생각했다.

일부 현대 학자들은, 근대 사상가들이 당시 과학에 기초한 기계론적 모형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는 일종의 교조적 믿음에 의존했을 뿐,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거부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로틴은 근대 과학이 자연에 목적이 없음을 보이지도 못했고 그렇게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은 아니지만, 목적론의 옳고 그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목적론이 거짓이라 할 수도 없다고 지적한다.

17세기의 과학은 실험을 통해 과학적 설명의 참·거짓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고, 그런 경향은 생명체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것이 물질로만 구성된다는 물질론으로 이어졌으며, 물질론 가운데 일부는 모든 생물학적 과정이 물리·화학 법칙으로 설명 된다는 환원론으로 이어졌다. 이런 환원론은 살아 있는 생명체가 죽은 물질과 다르지 않음을 함축한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의 물질적 구성 요소를 알면 그것의 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엠페도클레스의 견해를 반박했다. 이 반박은 자연물이 단순히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또한 그것의 본성이 단순히 물리·화학적으로 환원되지도 않는다는 주장을 내포한다.

첨단 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생명체의 존재 원리와 이유를 정확히 규명하는 과제는 아직 진행 중이다. 자연물의 구성 요소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탐구는 자연물이 존재하고 운동하는 원리와 이유를 밝히려는 것이었고, 그의 목적론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탐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머릿속의 구조도를 구체화하자!

16.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립되는 두 이론을 소개하고 각 이론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 ② 특정 이론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제시하여 절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③ 특정 이론에 대한 다양한 비판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새로운 이론을 도출하고 있다.
- ④ 특정 이론에 대한 비판들을 시대순으로 제시하여 그 이론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 ⑤ 특정 이론에 대한 비판들을 검토하고 그 이론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여 의의를 밝히고 있다.

필기 note

17. 윗글에 나타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미의 본성적 운동은 이성에 의한 것으로 설명된다.
- ② 자연물의 목적 실현은 때로는 그 자연물에 해가 된다.
- ③ 본성적 운동의 주체는 본성을 실현할 능력을 갖고 있다.
- ④ 낙엽의 운동은 본성적 목적 개념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 ⑤ 자연물의 본성적 운동은 외적 원인에 의해 야기되기도 한다.

필기 note

18. 윗글에 나타난 목적론에 대한 논의를 적절하게 진술한 것은?

- ① 갈릴레이와 볼로틴은 목적론이 근대 과학에 기초한 기계론적 모형이라고 비판한다.
- ② 갈릴레이와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이 아니라는 데 동의한다.
- ③ 베이컨과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교조적 신념에 의존했다고 비판한다.
- ④ 스피노자와 볼로틴은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확장한다고 주장한다.
- ⑤ 스피노자와 우드필드는 목적론이 사물을 의인화하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1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기> —

생물학자 마이어는 생명체의 특징을 보여 주는 이론으로 창발론을 제시한다. 그는 생명체가 분자, 세포, 조직에서 개체, 개체군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점점 더 복잡한 체계를 구성하며, 세포 이상의 단계에서 각 체계의 고유 활동은 미리 정해진 목적을 수행한다고 생각한다. 창발론은 복잡성의 수준이 한 단계씩 오를 때마다 구성 요소에 관한 지식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특성들이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마이어는 여전히 생명체가 물질만으로 구성된다고 보지만, 물리·화학적 법칙으로 모두 설명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 ①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엠페도클레스의 물질론적 견해가 적절하다고 보겠군.
- ②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자연물이 물질만으로 구성된다는 물질론에 동의하겠군.
- ③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생명체의 특성들은 구성 요소들에 관한 지식만으로 예측할 수 없다고 보겠군.
- ④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모든 자연물이 목적 지향적으로 운동한다고 보겠군.
- ⑤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모든 자연물의 본성에 대한 물리·화학적 환원을 인정하겠군.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목적 지향적인가? 자기 몸통보다 더 큰 나뭇가지나 잎사귀를 허둥대며 운반하는 개미들은 분명히 목적을 가진 듯이 보인다. 그런데 가을에 지는 낙엽이나 한밤 중에 쏟아지는 우박도 목적을 가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나며, 외적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 본성에 따른 운동을 한다는 목적론을 제시한다. 그는 자연물이 단순히 목적을 갖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실현할 능력도 타고나며, 그 목적은 방해받지 않는 한 반드시 실현될 것이고, 그 본성적 목적의 실현은 운동 주체에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자신의 견해를 “자연은 헛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요약한다.

1문단

질문을 통해 글의 방향성을 제시하네?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목적이 있나? 이 질문을 꼭! 기억하면서 읽어야 해.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일은 목적이 있다고 봤구나! (목적론)



N 글장이수능국어
blog.naver.com/karon1448

국어 강사 : 글장이

첫 문장부터 직접적으로 핵심질문을 던져주네!
이 대답을 찾아야겠어.

바로 나오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이 있다고 주장하는군.
이것이 '목적론'이고.

[~목적론을 제시한다.] 다음 문장부터 1문단의 끝까지는
목적론을 설명하는 구체적 문장이네.

근대에 접어들어 모든 사물이 생명력을 갖지 않는 일종의 기계라는 견해가 강조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많은 비판에 직면한다. 갈릴레이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베이컨은 목적에 대한 탐구가 과학에 무익하다고 평가하고, 스피노자는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왜곡한다고 비판한다. 이들의 비판은 목적론이 인간 이외의 자연물도 이성을 갖는 것으로 의인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비판과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을 생물과 무생물로, 생물을 식물, 동물, 인간으로 나누고, 인간만이 이성을 지닌다고 생각했다.

2문단

'근대'라는 단어를 보아, 통시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겠고~

근대 학자들(갈릴레이, 베이컨, 스피노자)은 아리스토텔레스와 반대 입장을 지녔군.

근대 학자들의 비판에 반론을 제시하며 2문단이 마무리되는군.



N 글장이수능국어
blog.naver.com/karon1448

국어 강사 : 글장이

'근대에 접어들어~'
음?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대는 고대였고
근대로 넘어왔네?

통시적으로 전개되는 글인가?!

근대는 기계론이 강조되던 시대이고
갈릴레이, 베이컨, 스피노자
세 학자는 기계론 입장이군.

기계론자들은 목적론을 비판했어.

왜냐하면 목적론이 '모든 자연물이 이성을 갖는다' 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그러나 이런 비판과 달리'
라는 말을 보니
앞문장의 내용이 아니다! 라는 식의 내용이 나오겠지.

역시!
기계론자들의 생각과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만이 이성을 지닌다고 생각했다고 하네!

일부 **현대** 학자들은, 근대 사상가들이 당시 과학에 기초한 기계론적 모형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는 일종의 교조적 믿음에 의존했을 뿐,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거부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로틴**은 근대 과학이 자연에 목적이 없음을 보이지도 못했고 그렇게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은 아니지만, 목적론의 옳고 그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목적론이 거짓이라 할 수도 없다고 지적한다.

고대 → 근대 → 현대 순으로 제시가 되고 있네. 통시적이군.

현대 학자들의 견해가 나오고 있어. 현대 학자들은 근대 학자들을 비판하네? 그렇다고 아리스토텔레스와 동일한 입장인 것은 아니야.

3문단



N 글장이수능국어
blog.naver.com/karon1448

국어 강사 : 글장이

'현대 학자들'

이라는 표현을 보아

이 글은 통시적으로 전개되는 글일 가능성이 높네.

현대의 견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학자들이 나오네?

2문단과 구성이 유사한걸?

[2문단의 흐름 : 근대의 견해 제시(=기계론) > 근대의 학자들 > 앞 문단(=목적론) 비판 > 반론]

[3문단의 흐름 : 현대의 견해 제시(=기계론 비판) > 현대의 학자들 > 앞 문단(=기계론) 비판]

“

현대 학자들은 기계론이 목적론을 제대로 비판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어.

이 말이 현대 학자들이 목적론 입장이라는 의미는 아니야!

주의해야겠지?

”

17세기의 과학은 실험을 통해 과학적 설명의 참. 거짓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고, 그런 경향은 생명체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것이 물질로만 구성된다는 **물질론**으로 이어졌으며, 물질론 가운데 일부는 모든 생물학적 과정이 물리. 화학 법칙으로 설명 된다는 **환원론**으로 이어졌다. 이런 환원론은 살아 있는 생명체가 죽은 물질과 다르지 않음을 함축한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의 물질적 구성 요소를 알면 그것의 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엠페도클레스의 견해**를 반박했다. 이 반박은 자연물이 단순히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또한 그것의 본성이 단순히 물리. 화학적으로 환원되지도 않는다는 주장을 내포한다.

4문단

근대 과학의 견해에 대한 반박이 나오고 있어. 다시 말해,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 대한 옹호가 나오고 있는 거지.



N 글장이수능국어
blog.naver.com/karon1448

국어 강사 : 글장이

근대의 흐름을 이야기해주네.

물질론 ▶ 환원론
으로 이어졌어.

[이런 환원론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다르지 않음을 함축한다.]

이 말은 즉

환원론은 sound of dog다.

라고 하는 거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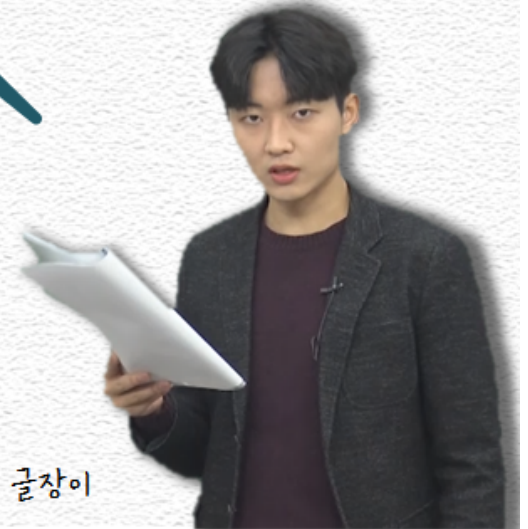
엠페도클레스는 환원론 입장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당연히 환원론을 반박하겠지.

첨단 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생명체의 존재 원리와 이유를 정확히 규명하는 과제는 아직 진행 중이다. 자연물의 구성 요소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탐구는 자연물이 존재하고 운동하는 원리와 이유를 밝히려는 것이었고, 그의 목적론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탐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5문단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이 갖는 의미를 언급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어. 이 글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 대한 옹호글이나 다름없네. 아리스토텔레스 갖갓



N 글장이수농국어
blog.naver.com/karon1448

국어 강사 : 글장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이 갖는 의미를 언급하며 글을 마무리하네.
이 글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 옹호글이나 다름없구만 ㅋㅋ

미시적으로 접근해봤으니
거시적으로도 볼까?

Q. 모든 일은 목적 지향적?

A. YES

(고대) "목적론"

아리스토텔레스
: 목적 추구 본성 + 실현할 능력

(근대) "기계론"

갈릴레이 베이컨 스피노자

(현대) 기계론 → 목적론 거부 근거 X

볼로틴 우드필드

인간만이 이성 지님

목적론은 모든 자연물을
이성을 가진 것이라 보았음

자연물 물질로만 X
물리, 화학적 환원 X

엠펜도클래스
자연물 물질로만 O
물리, 화학적 환원 O

단서에 a, b가 붙어있는 경우에는
a>b 순서로 단서를 보시면 이해가 수월하실 거예요.

16.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립되는 두 이론을 소개하고 각 이론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 ② 특정 이론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제시하여 ~~절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목적론 → 정반합
- ③ 특정 이론에 대한 다양한 비판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새로운~~ 이론을 도출하고 있다.
=목적론
- ④ 특정 이론에 대한 비판들을 시대순으로 제시하여 그 이론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목적론
- ⑤ 특정 이론에 대한 비판들을 검토하고 / 그 이론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여 의의를 밝히고 있다. (○) =목적론

16번 선지별 선택 비율
① 7% ② 2% ③ 4% ④ 6% ⑤ 79%

출처 : 메가스터디



이미지 설명으로 충분할 문제라 자세한 해설은 넘어가겠습니다.

17. 밑글에 나타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미의 본성적 운동은 이성~~에~~ 의한 것으로 설명된다.
- ② 자연물의 목적 실현은 때로는 그 자연물에 해가 된다.
- ③ 본성적 운동의 주체는 본성을 실현할 능력을 갖고 있다.
- ④ 낙엽의 운동은 본성적 목적 개념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 ⑤ 자연물의 본성적 운동은 ^{=목적론}외적 원인에 의해 야기되기도 한다.

17번 선지별 선택 비율
 ① 1% ② 1% ③ 94% ④ 1% ⑤ 1%
 출처: 메가스터디



N 글장이수능국어
 blog.naver.com/karon1448

발문에서 정확하게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묻고 있습니다.
 이때 딱 들었어야 하는 생각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는 **1문단과 2문단 마지막에 있었지**.
 입니다.
 나머지는 눈으로 확인해보면 되죠.
 아래 이미지처럼요.

1~2문단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목적 지향적인가? 자기 몸통보다 더 큰 나뭇가지나 잎사귀를 허둥대며 운반하는 개미들은 분명히 목적을 가진 듯이 보인다. 그런데 가을에 지는 낙엽이나 한밤 중에 쏟아지는 우박도 목적을 가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나며, **17번 ④**
17번 ⑤ - **외적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 본성에 따른 운동을 한다는 목적론을 제시한다. 그는 자연물이 단순히 목적을 갖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실현할 능력도 타고나며, 그 목적은 방해받지 않는 한 반드시 실현될 것이고, **그 본성적 목적의 실현은 운동 주체에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는** **17번 ②**
 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자신의 견해를 “자연은 헛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요약한다.

근대에 접어들어 모든 사물이 생명력을 갖지 않는 일종의 기계라는 견해가 강조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많은 비판에 직면한다. 갈릴레이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베이컨은 목적에 대한 탐구가 과학에 무익하다고 평가하고, 스피노자는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왜곡한다고 비판한다. 이들의 비판은 목적론이 인간 이외의 자연물도 이성을 갖는 것으로 의인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비판과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을 생물과 무생물로, 생물을 식물·동물·인간으로 나누고, **인간만이 이성을 지닌다고** **17번 ①**
 생각했다.


18. 윗글에 나타난 목적론에 대한 논의를 적절하게 진술한 것은?



- ① 갈릴레이와 볼로틴은 목적론이 근대 과학에 기초한 기계론적 모형이라고 비판한다.
- ② 갈릴레이와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이 아니라는데 동의한다.
- ③ 베이컨과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교조적 신념에 의존했다고 비판한다.
- ④ 스피노자와 볼로틴은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확장한다고 주장한다.
- ⑤ 스피노자와 우드필드는 목적론이 사물을 의인화하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18번 선지별 선택 비율

① 1% ② 93% ③ 2% ④ 1% ⑤ 0%

출처: 메가스터디



N 글장이수능국어  
blog.naver.com/karon1448

'목적론에 대한 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문을 읽으며 분류했듯이

목적론은 아리스토텔레스
목적론 비판(=기계론)은 갈릴레이, 베이컨, 스피노자
기계론 비판은 볼로틴, 우드필드

이것을 인지한 채로 문제를 봐야합니다.

문제 단서 찾는 것 자체는
굉장히 쉬우니 아래 이미지로 대체하겠습니다.

2~3문단

근대에 접어들어 모든 사물이 생명력을 갖지 않는 일종의 기계라는 견해가 강조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많은 비판에 직면한다. 갈릴레이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베이컨은 목적에 대한 탐구가 과학에 무익하다고 평가하고, 스피노자는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왜곡한다고 비판한다. 이들의 비판은 목적론이 인간 이외의 자연물도 이성을 갖는 것으로 의인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비판과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을 생물과 무생물로, 생물을 식물·동물·인간으로 나누고, 인간만이 이성을 지닌다고 생각했다.

일부 현대 학자들은, 근대 사상가들이 당시 과학에 기초한 기계론적 모형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는 일종의 교조적 믿음에 의존했을 뿐,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거부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로틴은 근대 과학이 자연에 목적이 없음을 보이지도 못했고 그렇게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은 아니지만, 목적론의 옳고 그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목적론이 거짓이라 할 수도 없다고 지적한다.

1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19번 선지별 선택 비율
① 2% ② 4% ③ 86% ④ 3% ⑤ 3%
출처: 메가스터디



생물학자 마이어는 생명체의 특징을 보여 주는 이론으로 창발론을 제시한다. 그는 생명체가 분자, 세포, 조직에서 개체, 개체군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점점 더 복잡한 체계를 구성하며, 세포 이상의 단계에서 각 체계의 고유 활동은 미리 정해진 목적을 수행한다고 생각한다. 창발론은 복잡성의 수준이 한 단계씩 오를 때마다 구성 요소에 관한 지식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특성들이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마이어는 여전히 생명체가 물질만으로 구성된다고 보지만, 물리, 화학적 법칙으로 모두 설명되지 않는다고 본다.

- ①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엠펜도클레스의 물질론적 견해가 적절하다고 보겠군. =환원론
- ②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자연물이 물질만으로 구성된다는 물질론에 동의하겠군.
- ③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생명체의 특성들은 구성 요소들에 관한 지식만으로 예측할 수 없다고 보겠군.
- ④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모든 자연물이 목적 지향적으로 운동한다고 보겠군.
- ⑤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모든 자연물의 본성에 대한 물리, 화학적 환원을 인정하겠군.

N 글장이수농국어 blog.naver.com/karon1448

<보기>의 내용과 지문의 내용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문을 먼저 살펴보면,

아리스토텔레스(목적론) 측의 입장

- 1. 자연은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 2. 물리, 화학적 환원 **불가**

기계론 측의 입장

- 1. 자연은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다.
- 2. 물리, 화학적 환원 **가능**

이렇듯 목적론과 기계론은 **정반대의 입장**을 지녔습니다.

<보기>를 살펴보면,

마이어의 입장

1. 자연은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다.
2. 물리, 화학적 환원만으로 설명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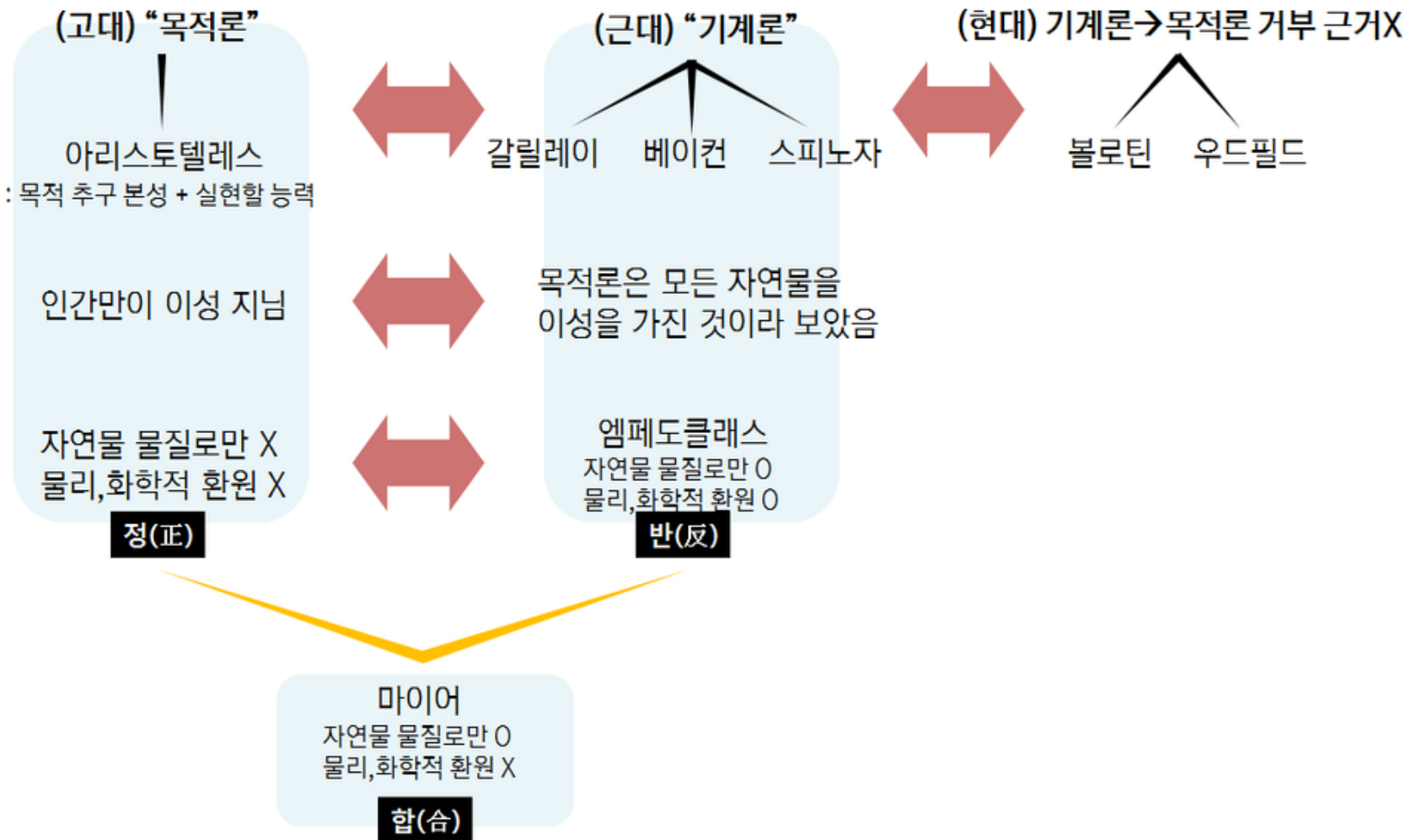
마이어는 목적론과 기계론의 **절충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지문과 <보기>는 **'정반합'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이죠.

정반합 간단 설명)
 '정'과 '반'은 서로 모순 관계의 주장이고,
 (모순 : 하나가 참이면 다른 하나는 거짓이 되어야 하는 관계)
 '합'은 '정'과 '반'을 종합하는 주장입니다.

Q. 모든 일은 목적 지향적?

A. YES



1,2번 : 마이어(습)는 엠페도클레스의 견해=물질론, 환원론(反)과 다른 견해를 지녔습니다.
합과 반이 같을 수는 없겠죠?

3번: 마이어와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이 일치**하는 부분은
'구성 요소들에 관한 지식만으로 예측(=환원론)'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번: '모든 자연물이 목적 지향적'이라고 말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

5번: 마이어와 아리스토텔레스는 물리, 화학적 환원을 인정하지 않죠.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목적 지향적인가? 자기 몸통보다 더 큰 나뭇가지나 잎사귀를 허둥대며 운반하는 개미들은 분명히 목적을 가진 듯이 보인다. 그런데 가을에 지는 낙엽이나 한밤 중에 쏟아지는 우박도 목적을 가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나며, 외적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 본성에 따른 운동을 한다는 목적론을 제시한다.** 그는 자연물이 단순히 목적을 갖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실현할 능력도 타고나며, 그 목적은 방해받지 않는 한 반드시 실현될 것이고, 그 본성적 목적의 실현은 운동 주체에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자신의 견해를 “자연은 헛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요약한다. - 1942 ④

근대에 접어들어 모든 사물이 생명력을 갖지 않는 일종의 기계라는 견해가 강조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많은 비판에 직면한다. 갈릴레이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베이컨은 목적에 대한 탐구가 과학에 무익하다고 평가하고, 스피노자는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왜곡한다고 비판한다. 이들의 비판은 목적론이 인간 이외의 자연물도 이성을 갖는 것으로 의인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비판과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을 생물과 무생물로, 생물을 식물·동물·인간으로 나누고, 인간만이 이성을 지닌다고 생각했다.

일부 현대 학자들은, 근대 사상가들이 당시 과학에 기초한 기계론적 모형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는 일종의 교조적 믿음에 의존했을 뿐,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거부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로틴은 근대 과학이 자연에 목적이 없음을 보이지도 못했고 그렇게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은 아니지만, 목적론의 옳고 그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목적론이 거짓이라 할 수도 없다고 지적한다.

17세기의 과학은 실험을 통해 과학적 설명의 참·거짓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고, 그런 경향은 생명체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것이 물질로만 구성된다는 물질론으로 이어졌으며, 물질론 가운데 일부는 모든 생물학적 과정이 물리·화학 법칙으로 설명 된다는 환원론으로 이어졌다. 이런 환원론은 살아 있는 생명체가 죽은 물질과 다르지 않음을 함축한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의 물질적 구성 요소를 알면 그것의 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엠페도클레스의 견해를 반박했다.** 이 반박은 **자연물이 단순히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또한 그것의 본성이 단순히 물리·화학적으로 환원되지도 않는다는 주장을 내포한다.** - 1942 ①, ②, ③

첨단 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생명체의 존재 원리와 이유를 정확히 규명하는 과제는 아직 진행 중이다. 자연물의 구성 요소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탐구는 자연물이 존재하고 운동하는 원리와 이유를 밝히려는 것이었고, 그의 목적론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탐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목적 지향적인가? 자기 몸통보다 더 큰 나뭇가지나 잎사귀를 허둥대며 운반하는 개미들은 분명히 목적을 가진 듯이 보인다. 그런데 가을에 지는 낙엽이나 한밤 중에 쏟아지는 우박도 목적을 가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나며, 외적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 본성에 따른 운동을 한다는 목적론을 제시한다. 그는 자연물이 단순히 목적을 갖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실현할 능력도 타고나며, 그 목적은 방해받지 않는 한 반드시 실현될 것이고, 그 본성적 목적의 실현은 운동 주체에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자신의 견해를 “자연은 헛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요약한다.

근대에 접어들어 모든 사물이 생명력을 갖지 않는 일종의 기계라는 견해가 강조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많은 비판에 직면한다. 갈릴레이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베이컨은 목적에 대한 탐구가 과학에 무익하다고 평가하고, 스피노자는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왜곡한다고 비판한다. 이들의 비판은 목적론이 인간 이외의 자연물도 이성을 갖는 것으로 의인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비판과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을 생물과 무생물로, 생물을 식물·동물·인간으로 나누고, 인간만이 이성을 지닌다고 생각했다.

일부 현대 학자들은, 근대 사상가들이 당시 과학에 기초한 기계론적 모형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는 일종의 교조적 믿음에 의존했을 뿐,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거부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로틴은 근대 과학이 자연에 목적이 없음을 보이지도 못했고 그렇게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은 아니지만, 목적론의 옳고 그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목적론이 거짓이라 할 수도 없다고 지적한다.

17세기의 과학은 실험을 통해 과학적 설명의 참·거짓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고, 그런 경향은 생명체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것이 물질로만 구성된다는 물질론으로 이어졌으며, 물질론 가운데 일부는 모든 생물학적 과정이 물리·화학 법칙으로 설명 된다는 환원론으로 이어졌다. 이런 환원론은 살아 있는 생명체가 죽은 물질과 다르지 않음을 함축한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의 물질적 구성 요소를 알면 그것의 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옴페도클레스의 견해를 반박했다. 이 반박은 자연물이 단순히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또한 그것의 본성이 단순히 물리·화학적으로 환원되지도 않는다는 주장을 내포한다.

첨단 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생명체의 존재 원리와 이유를 정확히 규명하는 과제는 아직 진행 중이다. 자연물의 구성 요소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탐구는 자연물이 존재하고 운동하는 원리와 이유를 밝히려는 것이었고, 그의 목적론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탐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머릿속의 구조도를 구체화하자!

16.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립되는 두 이론을 소개하고 각 이론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 ② 특정 이론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제시하여 절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③ 특정 이론에 대한 다양한 비판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새로운 이론을 도출하고 있다.
- ④ 특정 이론에 대한 비판들을 시대순으로 제시하여 그 이론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 ⑤ 특정 이론에 대한 비판들을 검토하고 그 이론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여 의의를 밝히고 있다.

필기 note

17. 윗글에 나타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미의 본성적 운동은 이성에 의한 것으로 설명된다.
- ② 자연물의 목적 실현은 때로는 그 자연물에 해가 된다.
- ③ 본성적 운동의 주체는 본성을 실현할 능력을 갖고 있다.
- ④ 낙엽의 운동은 본성적 목적 개념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 ⑤ 자연물의 본성적 운동은 외적 원인에 의해 야기되기도 한다.

필기 note

18. 윗글에 나타난 목적론에 대한 논의를 적절하게 진술한 것은?

- ① 갈릴레이와 볼로틴은 목적론이 근대 과학에 기초한 기계론적 모형이라고 비판한다.
- ② 갈릴레이와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이 아니라는 데 동의한다.
- ③ 베이컨과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교조적 신념에 의존했다고 비판한다.
- ④ 스피노자와 볼로틴은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확장한다고 주장한다.
- ⑤ 스피노자와 우드필드는 목적론이 사물을 의인화하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1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기> —

생물학자 마이어는 생명체의 특징을 보여 주는 이론으로 창발론을 제시한다. 그는 생명체가 분자, 세포, 조직에서 개체, 개체군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점점 더 복잡한 체계를 구성하며, 세포 이상의 단계에서 각 체계의 고유 활동은 미리 정해진 목적을 수행한다고 생각한다. 창발론은 복잡성의 수준이 한 단계씩 오를 때마다 구성 요소에 관한 지식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특성들이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마이어는 여전히 생명체가 물질만으로 구성된다고 보지만, 물리·화학적 법칙으로 모두 설명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 ①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엠페도클레스의 물질론적 견해가 적절하다고 보겠군.
- ②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자연물이 물질만으로 구성된다는 물질론에 동의하겠군.
- ③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생명체의 특성들은 구성 요소들에 관한 지식만으로 예측할 수 없다고 보겠군.
- ④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모든 자연물이 목적 지향적으로 운동한다고 보겠군.
- ⑤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모든 자연물의 본성에 대한 물리·화학적 환원을 인정하겠군.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목적 지향적인가? 자기 몸통보다 더 큰 나뭇가지나 잎사귀를 허둥대며 운반하는 개미들은 분명히 목적을 가진 듯이 보인다. 그런데 가을에 지는 낙엽이나 한밤 중에 쏟아지는 우박도 목적을 가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나며, 외적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 본성에 따른 운동을 한다는 목적론을 제시한다. 그는 자연물이 단순히 목적을 갖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실현할 능력도 타고나며, 그 목적은 방해받지 않는 한 반드시 실현될 것이고, 그 본성적 목적의 실현은 운동 주체에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자신의 견해를 “자연은 헛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요약한다.

근대에 접어들어 모든 사물이 생명력을 갖지 않는 일종의 기계라는 견해가 강조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많은 비판에 직면한다. 갈릴레이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베이컨은 목적에 대한 탐구가 과학에 무익하다고 평가하고, 스피노자는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왜곡한다고 비판한다. 이들의 비판은 목적론이 인간 이외의 자연물도 이성을 갖는 것으로 의인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비판과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을 생물과 무생물로, 생물을 식물·동물·인간으로 나누고, 인간만이 이성을 지닌다고 생각했다.

일부 현대 학자들은, 근대 사상가들이 당시 과학에 기초한 기계론적 모형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는 일종의 교조적 믿음에 의존했을 뿐,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거부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로틴은 근대 과학이 자연에 목적이 없음을 보이지도 못했고 그렇게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은 아니지만, 목적론의 옳고 그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목적론이 거짓이라 할 수도 없다고 지적한다.

17세기의 과학은 실험을 통해 과학적 설명의 참·거짓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고, 그런 경향은 생명체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것이 물질로만 구성된다는 물질론으로 이어졌으며, 물질론 가운데 일부는 모든 생물학적 과정이 물리·화학 법칙으로 설명 된다는 환원론으로 이어졌다. 이런 환원론은 살아 있는 생명체가 죽은 물질과 다르지 않음을 함축한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의 물질적 구성 요소를 알면 그것의 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옴페도클레스의 견해를 반박했다. 이 반박은 자연물이 단순히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또한 그것의 본성이 단순히 물리·화학적으로 환원되지도 않는다는 주장을 내포한다.

첨단 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생명체의 존재 원리와 이유를 정확히 규명하는 과제는 아직 진행 중이다. 자연물의 구성 요소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탐구는 자연물이 존재하고 운동하는 원리와 이유를 밝히려는 것이었고, 그의 목적론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탐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머릿속의 구조도를 구체화하자!

16.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립되는 두 이론을 소개하고 각 이론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 ② 특정 이론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제시하여 절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③ 특정 이론에 대한 다양한 비판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새로운 이론을 도출하고 있다.
- ④ 특정 이론에 대한 비판들을 시대순으로 제시하여 그 이론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 ⑤ 특정 이론에 대한 비판들을 검토하고 그 이론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여 의의를 밝히고 있다.

필기 note

17. 윗글에 나타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미의 본성적 운동은 이성에 의한 것으로 설명된다.
- ② 자연물의 목적 실현은 때로는 그 자연물에 해가 된다.
- ③ 본성적 운동의 주체는 본성을 실현할 능력을 갖고 있다.
- ④ 낙엽의 운동은 본성적 목적 개념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 ⑤ 자연물의 본성적 운동은 외적 원인에 의해 야기되기도 한다.

필기 note

18. 윗글에 나타난 목적론에 대한 논의를 적절하게 진술한 것은?

- ① 갈릴레이와 볼로틴은 목적론이 근대 과학에 기초한 기계론적 모형이라고 비판한다.
- ② 갈릴레이와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이 아니라는 데 동의한다.
- ③ 베이컨과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교조적 신념에 의존했다고 비판한다.
- ④ 스피노자와 볼로틴은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확장한다고 주장한다.
- ⑤ 스피노자와 우드필드는 목적론이 사물을 의인화하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1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기> —

생물학자 마이어는 생명체의 특징을 보여 주는 이론으로 창발론을 제시한다. 그는 생명체가 분자, 세포, 조직에서 개체, 개체군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점점 더 복잡한 체계를 구성하며, 세포 이상의 단계에서 각 체계의 고유 활동은 미리 정해진 목적을 수행한다고 생각한다. 창발론은 복잡성의 수준이 한 단계씩 오를 때마다 구성 요소에 관한 지식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특성들이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마이어는 여전히 생명체가 물질만으로 구성된다고 보지만, 물리·화학적 법칙으로 모두 설명되지 않는다고 본다.

- ①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엠페도클레스의 물질론적 견해가 적절하다고 보겠군.
- ②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자연물이 물질만으로 구성된다는 물질론에 동의하겠군.
- ③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생명체의 특성들은 구성 요소들에 관한 지식만으로 예측할 수 없다고 보겠군.
- ④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모든 자연물이 목적 지향적으로 운동한다고 보겠군.
- ⑤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모든 자연물의 본성에 대한 물리·화학적 환원을 인정하겠군.

N 글장이수능국어



글장이수능국어 블로그

질문이 있다면?

공부를 잘하고 있는 건지.. 공부법 칼럼이 필요하면?

수험생활에 도움될 고퀄리티 국어자료를 원하면?

추천의 말씀

“독서실록은 수험생이 스스로 점검하기 어려운 부분인 독해 방법을 논리적이며 체계적으로 정리해냈다. 집필자의 정성이 눈에 보일 만큼 아주 꼼꼼하게 잘 만들었다. 완성이 된다면 본원의 학생들에게 권해 보고 싶다.”

서초 메가스터디 의치대합격관 부원장 **김종두**